

교회목표

신명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대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대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선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 교회설립 56주년 기념주일

제6차 성찬식(1~5부) 및 가족연합예배(2·3부), 특별찬양(찬양예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지난 56년간의 교회의 자취를 돌아볼 때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꺾박을 받으시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 가십니다(마 16:18).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 웅장한 건물과 탁월한 조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8).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바울의 고백

바리새파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전해 주는 메시지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이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으로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합 2:4).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간의 어두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의 약속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까지도 보내주시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말 3:1). 약속하신 세례 요한도 오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다(마 4:17).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마칠 즈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한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요 13:1, 14:16~18, 16:7~8). 예수님께서서는 예정되신 대로 이 땅 위에서 그의 구속사역을 마치고서 부활 승천 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날 복음을 외치고 있다(행 16:30~3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의 권세 밑에 놓여 있다(롬 5:12).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롬 5:14).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가 현재 숨을 쉬고 사는 것만큼 아주 실존적이다. 죄악의 권세 밑에 있는 인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는다. 이 놀라운 은총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나타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롬 1:16~17).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편, 즉 축복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롬 5:1).

주님은 진노와 형벌 아래 있던 자에게 영생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롬 5: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앞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심판에서도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따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셨다(롬 2:4~5). 복음이 우리에게 열리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모든 인간 앞에 주어졌다(롬 5:2).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였으나(롬 5:14, 17)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 노릇할 것이다(롬 5:18). 아멘.



COME AND FIND REST

⁽²⁸⁾“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²⁹⁾“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³⁰⁾“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Our inviting Lord, Jesus Christ, calls out to all the people of the earth to come to Him, so that they can find rest. Actually, this is Jesus' first invitation as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It is a very special call because human beings don't have any other remedy for life's troubles and toils. The world offers vacation, spas, yoga, and many other meditative ideas, but nothing it recommends can relieve our soul's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needs. From the very beginning, God's wonderful love radiated upon human beings. Even after the Fall, which caused sin to enter every human being born, God still cared. He cares so much for us that He sacrificed His only S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Jesus' invitation is an expression of God's great love. It extends to both saints and sinners. Everyone who is weary has an opportunity to be refreshed in the Lord Jesus.

Jesus invites us to experience physical res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Jesus knows the difficulties of exhaustion in hard work. He knows about long hours, heavy labor and enormous responsibilities. During His ministry, He spoke with farmers, mothers, shepherds, fishermen, government officials, religious leaders, and all sorts of people in various occupations. Jesus understands the human body because He created it! Are you physically drained? Are you wondering where you're going to find the strength to go on? Jesus is asking you to come to Him. He is offering you heavenly strength. He loves you. Isaiah 40:31 says,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They will walk and not become weary." Do you believe it? Philippians 4:13 promise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Everyone who comes to Jesus will find rest. Everyone who comes to Jesus will receive strength. All you have to do is come in faith, and allow the Holy Spirit to work through you. Worshipping God through your faith in Jesus will strengthen you. Please rest in Jesus and let His Holy Spirit refresh you from top to toe.

Jesus invites us to experience emotional res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Weariness is not just physical, it can also be emotional. Anyone who is heavy-laden knows the weight of its emotional baggage. Emotional burdens drain our strength. Caring for others more than ourselves robs us of energy. Life's daily duties take away our human powers. Just thinking about things can cause worry and

concern. Everyone who is heavy-laden with life can find rest in Jesus. Jesus is the problem solver! 1Peter 5:7 says,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Do you believe it? If you do, you will find the answer. Jesus say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Jn. 14:27). It's important to cast all our cares on Jesus because He's the only One who can give us peace when we are troubled. His peace leads and guards our hearts. Philippians 4:6-8 say,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Finally, brethre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of good repute, if there is any excellence and if anything worthy of praise, dwell on these things." Jesus told Paul,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2Cor. 12:9). No one knows how this is possible, but everyone who goes to Jesus knows that it is possible. Jesus gives emotional rest to everyone who comes to Him.

Jesus invites us to experience spiritual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29-30). This is Jesus' promise! Please understand that our souls never rest until they rest in Jesus Christ. All humans struggle to find rest for their souls. Human life itself is a constant struggle. People work, participate in religious rituals, and pursue perfection, but all in vain. We make efforts to keep the world's laws and God's laws, but all to no avail. No matter how hard or how little we try, nothing works. Only Jesus Christ can bring true rest to the human soul. His spiritual power gives our souls rest. Faith comes not by work or ritual, but by simply believing. The more we try to do other things, the more spiritually worn out we become. Ephesians 2:8-9 say,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Do you agree? If so, your soul will find rest in Jesus.

My dear friend, you don't need to be a rocket scientist to figure out that Jesus is the answer you need. Our souls hunger for God's Word and need Jesus to revive them with His strength. Please come to Jesus and find complete rest in Him. Stop messing around and start trusting Jesus. He's calling you, so go to Him. Please go and experience the unimaginable, glorious, and overwhelming rest that Jesus gives. Amen. 

다음 주일 설교

오라 그리고 편히 쉬라

⁽²⁸⁾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³⁰⁾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김성관 목사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쉬음을 주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삶의 문제와 수고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휴가, 스파, 요가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육체와 감정,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인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의 초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초대는 의인과 죄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육체적 쉬음을 찾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육체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고된 일로 인하여 녹초가 되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의 힘든 노동과 어깨를 내리누르는 책임감에 대해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중에 농부들, 어머니들, 목자들, 어부들, 정부관리들,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31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고 달을 밟길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13은 약속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쉬음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음을 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도록 순종하십시오.

감정적 쉬음을 찾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감정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피곤함은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도 해당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적인 압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 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의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합니다. 매일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의무들은 인간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해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빠지고 맙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쉬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7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은 문제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6~8은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고후 12:9).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영적 쉬음을 찾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9~30).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투쟁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종교 예식에 참여하며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된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영혼에 쉬음을 줍니다. 믿음은 행위보다 예식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에 매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시도하면 한 수목 영적으로 더욱 지치게 될 뿐입니다. 에베소서 2:8~9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담이심을 알기 위해 굳이 모든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쉬음을 회복시키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쉬음을 찾아십시오. 이제 방향을 멈추고 예수님 믿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 상상할 수 없고, 영광스러우며 완전한 '쉬'를 누리십시오. 아멘.



교회 임시건물(천막)



교회 신축 현장

▶ 1958. 9. 30.
성전 건축 낙성식을 한다.

▶ 1963. 9. 2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입하다.

▶ 1967. 3. 12.
(충현)의 전신인 (충현주교)를 월간으로 창간하다.

▶ 1968. 9. 15.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왕령리에 교회
모지 용도 43,530평을 매입하다.

▶ 1971. 1. 1.
교회 구역을 동구, 서구에서
동구, 서구, 중구로 분할하다.

▶ 1972. 12. 16.
'재단법인 충현동산'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제1545호)를 받다.

▶ 1976. 12. 6.
경기도 광주군 대왕령리에 충현기도원
시공예배를 드린다(예배실 230평, 기도실
100평 외 연건평 780평).

▶ 1978. 5. 28.
새 성전 기공예배를 드린다.

▶ 1984. 4. 15.
충무로 성전에서의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린다.
1953. 9. 6. 이후 31년간 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 1988. 12. 20.
제3차 공사 준공, 본당 새 예배당 봉헌하다.
8년 8개월 12일간 공사 마무리되다.

▶ 1989. 3. 4.
(주간충현)을 창간하다.

▶ 1995. 6. 22.
충현복지관 개관예배를 드린다.

▶ 1997. 6. 6.
김성관 목사가 금요집회의 말씀
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찬
양과 말씀 중심의 새로운 형식의
금요집회를 진행한다.

▶ 1998. 1. 1.
1998년부터 홀수 달 첫 주
일을 성찬식의 날로 정하
고, 연 6회에 걸쳐 성찬예
식을 거행하기로 하다.

▶ 2000. 5. 28.
제2교육관이 완공되다.

▶ 2004. 1. 1.
장로, 안수집사, 권사 24시간 기도를 실시하다.

▶ 2006. 1. 1.
본당 강단 성구 휘장을 교체하다(4:17, 16:24).

▶ 2007. 1. 5.
65세 이상의 대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찬양대가
금요집회 시 찬양을 담당하다.

▶ 2007. 4. 15.
교구위원회가 제1교구위원회
(1~12교구), 제2교구위원회
(13~24교구)로 확대 개편되다.

▶ 2008. 11. 20.
충현기도원에 다목적 체육시설인 루디아관,
콘도식 숙박시설인 엘림관을 개관하다.

충현교회 56년 믿음의 자취



'충현주교' 창간



첫 주보



충무로 성전에서의
마지막 주일예배



건축 중기



본당 새 예배당
봉헌



김성관 목사



성찬식



본당 강단
성구 휘장
교체



루디아관



충현복지관



제2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22~23)

▶ 중언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 내 인생의 제일 기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교회 56년 생일 축하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람지마(외선부)**

▶ 교회 생일 축하해요. 찬양하는 교회가 좋아요. **박하림(유치부)**

▶ 주님의 은으로 56년을 함께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황재희(이재무 엄마, 영아부)**

▶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운 교회, 십자가 복을 위해서 내 영혼이 주를 섬기며 찬양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56주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박장순(성도, 5교구)**

▶ 교회 생일 축하해요. 동생이랑 같이 교회 다녀서 좋아요. **김다니엘(유아부)**

▶ 언제나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의 많은 민족에게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설희(집사, 3교구)**

▶ 예수님의 교회인 중언교회 56년 생일을 축하해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래요. **김다희(유년부)**

▶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세계에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고영은(소년부)**

▶ 진하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언의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강홍선(안수집사, 19교구)**

▶ 예수님이 머리되시는 귀한 중언교회에 다니게 되어 좋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김지환(중등2부)**

▶ 위임목사님이 저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의 굳건한 대들보가 되어 주세요. **조우빈(중등3부)**

▶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하여 친이 간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최연호(고등부)**

▶ 예수님만이 참 주인인 교회,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 전파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성자(권사, 13교구)**

▶ 56주년을 축하합니다. 방주의 역할을 바로 하는 교회 되게 아소서. **김경순B(집사, 사랑부 교사)**

▶ 교회의 참되게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 위에 지난 56년을 지키시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되는 중언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유미나(대학부)**

▶ 56년간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정지호(에바다부)**

▶ 온갖 고초 속에서도 눈을 물려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거짓 교사와 자기 자랑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많은 종교지도자가 난무한 이 때, 온갖 시기와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담대히 실천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준(집사, 17교구)**

▶ 중언교회 설립 56주년을 맞는 9월 첫째 주일 나는 첫 성전식을 드린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나에게 신앙은 단지 나를 정의하는 많은 취미나 특성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중언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중언교회에 한주 한주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성경말씀을 통해 내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을 고백하게 하셨다. 즐겁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지영(청년1부)**



주요 1부예배 메시지
(2009. 9. 2)

교회의 머리는 (골로새서 1:13-23)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찾으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말씀에서 찾으면 쉽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모든 성경의 일치된 증언이다.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쳤다.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하였다(골 1:1-8). 당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은 복음적인 교회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필사록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

와 같은 문제가 골로새교회에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친 것이다(골

1:21~23).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교회를 염려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일 2:15~17), 잃어버린 첫 사랑(계 2:1~7)을 회복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육체를 일으킨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지(골 1:24). 우리와 교회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골 1:25). 인간이 중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근본이 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근본이 되신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 새 창조를 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셨으며(마 2:19, 22 ; 마 16:18), 복음을 위한 당신의 일꾼을 세우셨다(골 4:11).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분이지 개개인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 일꾼들에게는 회생과 봉사가 필요하다. 성경의 전(전 6:19)으로서 모든 자선심과 교만을 버려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

● **평화를 이루셨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셨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수많은 갈등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 내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모두 쏟으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미라”(골 1:20).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벧전 1:18~19).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롬 5:1, 8~9). 또 다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골 2:20~23).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간직하라(롬 8:38~39).

● **천국에서 교회를 완전히 세우신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신다. 이전의 것들은 원수 되었던 것들이며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골 1:21).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2).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하다.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차별이나 제한 없이 우리를 초대하신다(사 1:18).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라.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동시에 그분은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우리와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다(골 1:26). 영생스러운 이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골 1:27). 신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세상의 문화와 전통,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자(골 2:20~3:4). 지금, 시온의 영광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교회에 비추었다(찬 550장). 아멘.

마가복을 강해 67

빈 무덤 (16:1-8)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레미야 아라바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죽으신 지 삼일 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물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막 16:1~2).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놀랐다.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막 16:3~4). 무덤 속으로 들어가 여인들은 한 청년을 보고 더욱 놀랐다(막 16:5).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았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데로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으리라 하라 하는지라”(막 16:6~7). 청년의 모습을 한 그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미 당시의 부활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막 8:31, 9:31, 10:34, 14:28).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시체를 찾으러 왔다. 그런 만큼 천사의 메시지에 여인들은 매우 놀랐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막 16:8). 마가는 부활에 대한 기록을 다른 복음서(마 28:9~10, 16~20)와는 달리 놀람과 공포로 끝맺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수난, 죽음과 부활을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많이 있었기에 굳이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나 이 확실한 진실을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은폐하려고 거짓 소문을 내었다(마 28:12, 15).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빈 무덤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빈 무덤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셨다. 하나님도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의 진실성을 입증하셨으며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빈 무덤에 있어야 한다.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을 동시에 보게 된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으며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미 흩어졌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인간적인 사랑과 예의를 지킬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놀란 것(막 4:40~41, 6:50~51, 9:6)처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에서의 축복과 성공을 갈망하며 찾고 있는가? 회개하자! 우리는 모두 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행 2:24).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갈 1:1). 빈 무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고전 15:20~21).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자. 아멘.

*내일(9월 7일) 필로새벽기도회부터 '메시야의 죽음'을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낮에는 복음 전파

밤에는 영적 무장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7일(월) ~ 9월 15일(화)	17교구 4팀	박찬욱
9월 8일(화) ~ 9월 16일(수)	2교구 4팀	박종철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5일(화) ~ 9월 3일(목)	21교구 3팀	김재춘

어느 곳 누구에게나 한국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도착한 선교지. 이른 아침인데도 강렬한 태양 빛이 온 몸을 달구니 입고 있는 옷은 금세 땀으로 젖어버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만 같다. '고난을 기뻐하며 복을 전하자'는 선교구호를 속으로 외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데만 먼저 눈 에 들어오는 그들의 삶의 현상이 너무나 처절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더위 따윈 느낄 겨를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살기 힘든 이들에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게 육신의 고달픔을 이겨내고 마음에 평강을 심어 줄 매신자는 바로 우리가 아닌가. 부름 받아 나선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자'고 마음 속에 다짐하며 열심히 선교지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담담하게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다. 실로 '낮에는 복음 전파, 밤에는 영적 무장'의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친 이 시간, 아직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땀도는 모습들이 있다. 한 쪽 팔에 주사를 맞으며 배가 아파 괴로워하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청년부인과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몇몇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눈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감격했던 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여드는 어린이들에게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을 함께 부르고, 사람이 매마른 땅에 복음 증거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 일이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어 풍성한 수확을 이루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무뎠던 내 자신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기쁘다. 끝으로 우리에게 선교사역의 사명을 주시고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경호(집사, 8교구)

새가득양육부 8월 수료자 ①

너무나 감동적인 십자가



▶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2008년 7월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길구)

▶ 그저 힘들고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가득양육부와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성장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 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인생에 만족과 감사를 몰았던 저에게 믿음과 사랑, 감사함을 느끼고 베풀 수 있게 도와 주신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고픈 분입니다. 지금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고 알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고만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주님의 도구로서 봉사 또한 겸허히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봉희)

▶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고, 항상 복음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고만과 자존심을 버리게 하소서. (정지준)

▶ 이제까지 막연히 알거나 추측했던 여러 가지(구원, 죄, 거듭남,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며 작게는 사랑하는 아들의 병과 남편의 사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안 믿는 가족과 형제들 모두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김인자)

▶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와서 교역자님들과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새가득부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며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오)

▶ 교회는 거의 처음 다녔습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매스컴을 통해 평소 접하거나 느껴왔던 교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곳과 사랑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덜어 주시며 한결같은 부모님의 마음 같이 너그러우시며 사랑과 자선감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박준영)

▶ 지금까지 저의 신앙은 친구들과의 교제가 전부였고, 제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교만한 생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두번째 재림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참 신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혼란 속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이 아닌, 성경을 중심으로 참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김연숙)

♡ 새 가 득 을 한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4	김시찬	25	예배다부	김병권(22)
1305	이용규	7	소망부	이동희(20)
1306	김은경	11	충동3부	박숙경(24)
1307	문경선	10	청년1부	안영희(18)
1308	강하영	19	충동3부	이민숙(19)
1309	도윤선	19	청년1부	김수자(20)
1310	김선미	1	청년1부	김경숙(2)
1311	고현진	18	청년1부	윤선미(11)
1312	윤순화	6	청년1부	
1313	박희진	2	청년1부	한만교(24)
1314	최광자	2	청년1부	
1315	김형주	18	청년1부	권태선(19)

* 중환자실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득 통로로 오시기 바랍니다.*

